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1인용 식탁



5.6-5.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0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부터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등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0년 두산인문극장의 주제는 ‘푸드 FOOD’다. 5월부터 7월까지 사회학과 인문학, 과학 등 각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하는 강연 8회 및 공연 3편을 진행한다.

푸드 FOOD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미를 부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 왔다. 인류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살펴보면 어떻게 지금의 인류에 이르렀는지 역사를 알 수 있다. 음식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오늘날 음식문화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거대한 산업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커졌다. 이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개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가까워졌다고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없었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윤리적,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두산인문극장 2020은 ‘푸드 FOOD’를 이야기하며 먹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펴보고 먹는다는 것이 지닌 의미들을 되짚어본다.

공연

Space111

[연극] 1인용 식탁 5.6-5.23

원작	윤고는 「1인용 식탁」, 『1인용 식탁』(문학과지성사, 2010)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출연	김시영 윤성원 이새롬 류혜린 이화정 허영손 김연우

[연극] 궁극의 맛 6.2-6.20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土山しげる 『고쿠도메시 極道めし』(후타바사 간행)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드라마터그	윤성호
출연	강애심 이수미 이주영 이봉련 김신혜 신윤지 송광일

[연극] 식사食事 6.30-7.18

작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한솔

강연

연강홀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6.1	음식의 정신심리학적 의미 6.29
이옥정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김율리 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장

다윈과의 만찬 6.8	오늘의 식탁 7.6
전중환 진화심리학자, 경희대학교 교수	정재훈 약사, 푸드라이터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6.15	농업이라는 산업, 농산물이라는 상품 7.13
이도현 농업회사법인 성우 대표	김태호 과학기술학자, 전북대학교 교수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6.22	식품의 세계체제와 한국음식의 미래 7.20
김성한 진화윤리학자,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시놉시스

직장생활 9개월 차, 신입사원 딱지를 갓 뗀 인용은 회사에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한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하지만 아무도 인용과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의기소침해진 채 매일 꾸역꾸역 혼자 밥을 먹던 인용은 결국 ‘혼자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학원에 등록하기에 이른다. 짜장면, 파스타, 한정식까지는 혼자 먹겠는데…… 고깃집에서 고기를 혼자 구워 먹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인용 앞에 혼자 먹기의 달인이 나타난다.



소설집

『부루마불에 평양이 있다면』 『1인용 식탁』 『알로하』
『늑은 차와 히치하이커』

장편소설

『해적판을 타고』 『무중력중후군』 『밤의 여행자들』

수상

2015 김용익소설문학상 『알로하』

2011 제12회 이효석문학상 『해마, 날다』

2008 제13회 한겨레문학상 『무중력중후군』

2003 제2회 대산대학문학상 『피어싱』

원작

윤고은

소설가



우리들의 1인용

소설집 『1인용 식탁』의 표지에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얼룩말이 등장한다. 식탁 앞에 앉은 그 얼룩말은 호젓해 보이기도 하고 가뻗해 보이기도 한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010년의 일이라, 책 속의 얼룩말은 십 년째 혼밥 중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표지를 보면 묘한 감정들이 충돌하는 것을 느낀다. 얼룩말은 쓸쓸할까, 어색함을 느낄까, 견디고 있나, 아니면 흥분하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통과하는 중일까. 얼룩말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인데 그를 바라보는 이의 마음은 홀로그램처럼 흔들린다.

책으로 묶인 건 2010년이지만 이 소설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1인용 식탁」은 2009년 여름에 발표했던 작품이다. 그러니 그해 봄 내내 이 소설 속을 헤매고 다녔을 것이다. 얼핏 떠오르는 순간들도 있다. 이를테면 내가 파스타를 먹는 중이라고 했을 때 친구가 보였던 반응. 친구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고 하자 집에서 해먹는 거냐고 물었다. 친구의 생각이 이동한 경로(누구랑? 혼자? 집에서? 집이 아니고? 아니 거기서 왜?)를 되짚어보면 꽤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친구에게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밖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데”로 시작된 가정은 점점 더 세밀해져서 여러 제약을(책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 붙이기 시작했다. 친구의 대답도 점점 세밀해졌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카페의 샌드위치나 도넛 정도는 가능하지만 파스타는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파스타도 어떤 분위기의 장소인지에 따라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어쩌면 타인의 시선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소설의 실루엣이 보였다.

출간 직후보다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혼밥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내가 소설을 쓰고 발표하고 출간했던 그 당시에는 없던 단어였기 때문에 내게는 ‘혼밥’이 좀 낯설다. ‘혼밥’이라고 간편하게 통합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여전히 낯설다. 그 단어 안에 옥여넣었을 온갖 상황과 감정들을 떠올리면 혼밥은 너무 구체화된 이름표여서 어쩌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십 년 전에 시작했던 「1인용 식탁」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읽는다는 것, 그리고 2020년 봄밤의 무대에서 연극으로 만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혼밥’이라고 명명하고도 찜찜해지는, 덜 설명된 것 같은 그 허기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려는 몸짓일 것이다.

외로움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타인에게 외롭게 보일까봐 위축되는 사람들, 혼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면 얼마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속의 학원도 문을 열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의 1인용’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혼자인 걸까, 여럿인 걸까. 현실에는 없지만(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학원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만만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만만한 감정은 편안한 운동화처럼 우리의 산책을 도울 것이다.

연출
〈피어리스:더 하이스쿨 맥베스〉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작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바람직한 청소년〉 〈연애사〉 〈윤이상;상처입은 용〉
〈개인의 책임〉 〈오십팔키로〉 외

윤색
〈게임〉

번역
〈김씨네 편의점〉 〈피어리스:더 하이스쿨 맥베스〉(공동번역)

수상 및 선정
2019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 연출 선정
2018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016 대산창작기금 희곡부문 선정
2016 국립극단 창작극개발프로젝트 '작가의 방'
2014 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연극 선정 〈바람직한 청소년〉
2009 제7회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 〈가족오락관〉



이오진

각색
극작가·번역가·연출가
페미니스트극작가모임
호랑이기운 대표

다들 뭘 먹고 살까. 당신의 메뉴가 궁금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당신의 생활과 생사만큼이나 당신의 식탁 위에 반찬이 궁금합니다. 혼자 먹는 거라고 대충 때우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요리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외롭거나 처량할 일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건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나와 친구 만나고 서로 안부 물으며 식사하면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뭘 먹고 살까.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공연이 범법의 영역에 가닿는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이 난국에 공연을 준비하신 배우분들과 연출님, 스태프분들께 존경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공연이 올라간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생동감을 느낍니다. 이 지점을 관객과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두산아트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관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이 자유롭습니다. 윤고은 작가님, 10년 전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학원 이야기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의 식탁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연출
〈대한민국 난투극〉〈성인이 망국하옵니다〉〈호랑이를 부탁해!〉

각색·연출
〈고구마밭 그 랩터〉〈딸에 대하여〉〈가시리〉〈죄와벌〉〈해카베〉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외

연출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경성스케이터〉〈산책하는 침략자〉〈난설〉
〈줄리엣과 줄리엣〉〈손〉〈로더리고〉〈용의자X의 헌신〉 외

수상 및 선정
2019 제1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 수상
2019 제1회 한국연출가협회 젊은 연출가상 수상
2019 아르코파트너 선정
2018 제27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수상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2017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선정 〈손〉
2017 제38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수상 〈손〉
2015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 선정 〈대한민국 난투극〉
2013 제1회 창작국악극대상 대상 수상 〈운현궁 로맨스〉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가(AYAF) 연극분야 2기



연출 이기쁨

연출가
창작집단 LAS 대표

끈기가 부족한 나는 본의 아니게 수많은 운동을 접했었는데 그 중 가장 사랑했던 것은 복싱이다. 복싱은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아주 아주 긴 호흡으로 ‘삶’이란 경기를 해 나가야만 하는 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주 중요한 말들을 남겼다. 예를 들면,

“힘을 빼라. 고개를 돌리지 말고 똑바로 정면을 보라.
나의 리듬으로 상대방의 리듬을 끌어오라.”

팔과 다리에 힘이 가득하면 몸은 경직되고 느려진다. 굳은 몸으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질 못하니 날 향해 밀고 들어오는 상대방을 피하기만도 바빠 고개는 숙여지고 잔뜩 웅크린 채 두들겨 맞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알 길은 전무하고 상대방의 리듬을 알 수도 내 리듬을 지킬 수도 없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패배다. 그러니 온몸에 힘을 빼고 똑바로 정면을 보는 것이다. 원, 원, 원 투, 가볍게 잼을 던지며 나의 리듬을 뱉으며 상대방의 리듬을 파악한다. 그러다 발견되는 빈 순간, 나의 리듬으로 상대방의 리듬을 쫓겠다. 원, 원, 잼, 어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치열한 경기가 끝남을 알리는 공(복싱에서 한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상대방을 쓰러트리려고 애쓰던 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상태를 걱정하며 상대방과 인사를 나눈다. 스포츠맨십이 보여 주는 아름다운 맺음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선의 편치들에 무력해진 오인용은 나처럼, 자신의 리듬을 찾아간다. 혼밥을 하면서 강약중강약을 외치면서 자신을 찾는다. 아마도 인용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경기보다 가장 고되고 외롭고 어려운 경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고되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 얻어낸 인용의 리듬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 다른 이의 리듬을 쫓개낼 것이다.

마침내 공이 울린다. 경기를 마친 인용에게 승패는 상관없다.
이제 ‘나의 리듬’을 찾았으므로, 그리고 다른 이의 리듬도 들을 수 있으므로.

혼밥생활자, 현대의 식탁을 꿈꾸다

김다은

사회적 개인주의자를 꿈꾸는 혼밥생활자이자 독서가. CBS 라디오 프로듀서

1. 아주 맹렬하게 무언가를 먹을 때가 있다. 이 지구상에 음식과 나, 오로지 단 둘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연인이자기보다는 승부를 겨루는 적수와 같다. 나는 그것을 집요하게 노력보다 침을 꿀꺽 삼키고 수저라는 쇠붙이로 급소를 친다. 그리고 단박에 먹어 삼킨다. 이런 맹렬한 식사 중에 송골송골 이마에 땀이 맺힌다. 나는 손수건으로 인종의 땀을 닦으며, 간간히 설원의 여우를 떠올린다. 레밍을 잡기 위해 몸을 봉 띄운 뒤 머리를 땅굴로 처박는 헤드다이빙의 명수. 벚꽃처럼 눈가루가 사방으로 튀어 오르면 얼굴이 뽀족한 여우의 입에는 갈색 털의 나그네쥐가 물려 있다. 나의 식사도 그 정도 비장함과 우아함이 있다면 꽤 그럴듯하겠다. 하지만.

슈퍼와 편의점, 온라인 마트를 오가며 장을 본다. 대범하고 전략적인 사냥술 대신 손가락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된다. 클릭클릭. 드르륵. 클릭. 먹음직스러운 완제품의 사진을 보며 ‘오...!’하고 감탄하다가도 내가 저렇게 만들 순 없으리라는 현실과 사이 좋게 타협한다. 식재료 한두 가지만 주문하기엔 택배상자가 너무 행해서 불필요한 것을 굳이 채워 넣는다. 한끼 대용 냉동 떡, 묽음으로 파는 초콜릿, 4kg 고구마 같은 것. 집에서 주로 나는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1인용 밥상을 차린다. 밖에서 먹을 땐 복적이는 식사 시간대를 피해 눈치껏 2인용 테이블에 앉아 순두부찌개나 김밥을 시켜 먹는다.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정말 이

메뉴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심심한 밤중엔 집 안을 서성이다 적막을 깨트리려는 심산으로 아이스크림을 찹찹 씹어 먹기도 한다. 그러다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문장 하나.

“오로지 혼자, 밥 한끼를 챙겨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아주 오래 나를 쫓아다니는 질문이다. 나는 먹는 것에 대해, 특히 혼자 먹는 것에 대해 꽤나 질기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쉬이 한가지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오늘도 나는 여우의 사냥 같은 것을 떠올린다. 한끼의 식사가 차라리 아주 공들인 사냥이면 좋겠다. ‘생존’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할 테니까. 하지만 도시에서의 혼밥은 종종 허기를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눈앞에 다가온 헛헛함을 외면하기 위한 명분, 깊은 허기를 동반한 결식 혹은 폭식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그렇다. 어쩌면 맹렬하게 먹어 치우고 싶었던 것은 한 그릇의 식사가 아니라 부유하는 외로움, 타인들의 시선, ‘왜 나는’하고 떠오르는 복잡한 ‘관계의 방정식’에 답하는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했는가.
왜 나는 그 누구도 초대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토록 혼자란 말인가.

그리고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라고.

2. 이제 그 중얼거림에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답을 붙이기로 한다. 아, 첫머리에 ‘더 많은 사람이’라는 말도 빼먹지 않고 써넣는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아이스크림을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맥주를 마시든... ‘어쩐지 쓸쓸하군.’이라며 허벅지를 긁는 사람이 두 집 건너 한 집씩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은 ‘1인 가구’ 혹은 ‘혼밥생활자’라는 말로 나와 내 동료들의 사정을 통쳐버리는 못사람들의 게으름이 지겹기까지 하다. 혼자 밥을 먹는 이유도, 그들 밥상 위의 메뉴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설마 아직 모르는 걸까? 에이, 설마.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토록 만연한데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순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고개를 더 크게 가로젓는다. 그리하여 ‘왜 나는’이라며 내 안으로 향했던 질문을 이 사회로 되돌려 던져 본다. ‘우리의 공동체는 왜 아직도’라고.

‘지옥고’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청년의 식탁도 있고 과카몰리에 감바스, 와인까지 곁들인 자발적 비혼의 식탁도 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본 이도, 폭력을 피해 마침내 자기만의 밥상을 차려낸 이도, 사별한 노인도, 역대 보증금을 낸 실버타운의 김교수도 있다. 모두가 그렇듯, 이들의 한끼에도 너무나 다양한 서사들이 존재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만, 고독사의 주인공으로만, 솔로이코노미의 소비자로서만 1인 가구를 호명하는 것에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만약 누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외로움이 전염병이 된 사회’라고 혀를 찬다면 나는 그저 그 말이 맞다고 답하겠다. 사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던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시작되어 널리 퍼진 미래다. 혼밥의 풍경은 독특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보편의 풍경이다. 그러니 외로움 전염시대에 필요한 것은 격리나 배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집단 면역이다.

3. 하지만 외로움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보편’을 넘어서는 ‘불편’이다. 아니, ‘불편’을 넘어서는 ‘불합리’다. 어떤 외로움은 나약함과 부적응의 증거가 되지만 어떤 외로움은 이해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연령이 높은 사람의, 이 사회에서 ‘정상’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일수록 더 사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혼자됨’은 경제적, 정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외로움의 차별’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중대한 숙제다. 나는 초대받지 못한 채 문밖에서 서성이는 기분, 찢찢매는 기분에 대해서 자주 상상한다. 자리를 갖지 못한 어떤 마음들은 이런 것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이들을 위해 내어줄 단 한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인류학자 김현경은 저서 『사람, 장소, 현대』에서 현대를 이렇게 정의한다. ‘절대적으로 자리를 주는 일,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회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 즉, ‘그를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일수록 타자를 제대로 환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각자의 처지를 보다 공평하게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단단한 안전망이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병들거나 상처받거나 아프지 않을 수 있길 바란다. 공동체를 뜻하는 Community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 muni는 의무(duty, service)를 뜻한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나누어짐으로써 공동체라는 정원은 더 건강한 공간이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건강한 환경이 되어줄 의무를 나누어 가진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운 1인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광장을 꿈꾼다. 더 민주적이고 더 풍성한 상상력이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제, 서로를 뜨겁게 환대할 시간이다.

*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29.8%이며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32%이다.

외로운 밥, 혹은 고독한 밥

글. 이현지

가슴에 떨림을, 사회에 울림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콘텐츠 기획사 미로우미디어 대표

고깃집에 혼자 앉아 고기와 술을 먹고 있는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있는 대로 음식을 욱여넣고 우물우물 씹어 목구멍으로 꼭- 밀어 넣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술 한 잔을 곁들여 고기의 촉촉한 육즙을 음미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밥하는 그는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해리 스택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은 외로움을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인 혼자됨’으로, 고독을 ‘스스로 선택한 긍정적인 혼자됨’으로 정의합니다. 외로움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서글프고 괴로운 감정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해 얻어낸 평화롭고 즐거운 감정인 거죠.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통 혼자 있음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특히 홀로 밥 먹는 사람을 보면 어쩐지 짝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안쓰러워 보이는 혼밥이 그 어떤 왁자지껄한 식사보다 충만한 식사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한 점 들어 그 모습을 보고, 숨 깊이 향을 맡고, 찬찬히 맛과 식감을 느끼는 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독백으로 흘러나오는 내 속 깊은 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혼밥들은 허겁지겁 먹는 ‘외로운 혼밥’이 아닌, 오히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한 혼밥’인 것이죠.

불안함과 평화로움 그 사이에서

고전문헌학자 배철현은 그의 저서 『정적』에서 “인간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지닌 개인이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고유함을 발현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이죠. 복잡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며 바빠 살아가면서도 홀로 우뚝 서는 힘을 기르고 싶은 것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의 만족감을 얻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음이 문구처럼 쉽지만은 않지요. 혼자 있음에서 오는 불안함과 평화로움은 종이의 양면과 같아 나도 모르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스며들곤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선택’의 문제로 구분한 해리 스택 설리반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오늘 먹는 혼밥이 ‘외로운 밥’이 될 것인가, ‘고독한 밥’이 될 것인가는 매 순간 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혼밥이 외롭고 괴로울 때 나 자신과 마주하여 보세요. 음식의 모양과 맛, 향에 집중하고, 내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혼자라서 평화롭고 즐거운, 고독한 나만의 식사로 어느새 마음이 스며들어 갈 거예요.

오늘 나의 혼밥.

외로운 밥이었나요, 고독한 밥이었나요.

애·선배

김시영

연극

〈이갈리아의 딸들〉 〈아부지〉 〈개고기 숲〉 〈말 잘 듣는 사람들〉
〈메디아 온 미디어〉 〈행복〉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오작교 형제들〉 〈해를 품은 달〉

영화

〈새해전야〉 〈어린 의뢰인〉 〈히스토리〉 〈보통사람〉 〈애자〉



사·강사

윤성원

연극

〈템플〉 〈산책하는 침략자〉 〈어딘가에, 어떤 사람〉 〈대한민국 난투극〉
〈여전사의 섬〉 〈헤카베〉 〈네버 더 시너〉 〈행복한 날들〉 〈손〉 〈불신의 힘〉
〈용의자X의 헌신〉 〈국화꽃향기〉 〈슬로언씨를 위하여〉 〈쉬어매드니스〉
외 다수

음악극

〈낭랑괴생〉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햄릿:얼라이브〉 〈안녕! 유에프오〉 〈살리에르〉 〈빨래〉
〈싱글즈〉 〈반지점프를 하다〉 〈어쌔신〉 〈곤 더 버스커〉 〈달을 품은 슈퍼맨〉
〈당신만이〉 외 다수



이

이새롬

연극

〈우리별〉〈대한민국 난투극〉〈헤카베〉〈손〉

뮤지컬

〈6시 퇴근〉

가족뮤지컬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가족음악극

〈고구마 밭 그 랩터〉

낭독극

〈더 테이블〉



오인용

류헤린

연극

〈응, 잘가〉〈오이디푸스-알려고 하는 자〉〈귀국전-불행〉
〈달빛안갯길〉〈데리러 와 줘〉〈춘천거기〉〈청춘, 간다〉〈정물화〉
〈너와 함께라면〉〈있었다〉〈오빠가 돌아왔다〉〈도살장의 시간〉

드라마

〈더 게임:0시를 향하여〉〈커피를 부탁해〉〈투깝스〉〈김과장〉〈W〉
〈일리 있는 사랑〉〈유나의 거리〉〈가족의 탄생〉

영화

〈부곡 하와이〉〈족구왕〉〈씨니〉 외 다수



무

이화정

연극

〈보도지침〉 〈로미오와 줄리엣〉 〈페르퀀트〉 〈김씨네 편의점〉
〈세일즈맨의 죽음〉 〈페리클레스〉 〈한 여름밤의 꿈〉 〈복도에서, 美성년으로 간다〉

드라마

〈열 여덟의 순간〉

영화

〈엑시트〉 〈나의 독재자〉 〈감시자들〉



일

허영손

연극

〈버닝필드〉 〈해다가블러〉 〈대한민국 난투극〉 〈멈춰진 정류장에서 바라보다〉



유

김연우

연극

〈밀레니엄 소년단〉 〈미남이신가요?〉 〈산책하는 침략자〉 〈줄리엣과 줄리엣〉

드라마

〈죽어도 좋아〉



‘혼자 밥을 먹는 것’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이다빈

조연출

인용씨의 모습은 혼밥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혼밥을 시작할 때부터 고수라서 모든 코스를 건너뛰고 고깃집을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혼자서 먹으면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러한 잡념에 갇혀 우리는 혼자 먹기 어려운 곳은 도전하기 힘들다.

팀 내에서 혼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혼자 어느 식당까지 가서 밥을 먹어 보았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거리다. 우리 팀에는 혼자 고깃집을 가본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날, 헤린 배우가 혼자 고깃집에 가서 2인분의 고기를 시켜 먹었고 시영 배우가 고깃집에 갔으나 한 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생각보다 고깃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녹록하지 않다. 고깃집에서 혼밥을 하면 가게 점원부터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닌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식사하는 사이에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은 혼밥이 만연한 지금에도 생경하고 낯선 존재로 인식된다.

고깃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중으로 둘러싸인 4면의 링 위에 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 그 시선들에 맞서 마구잡이로 펀치를 날린다. 나를 그만 보라고, 혼밥을 즐기겠노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차려진 식탁 위에서 곳곳이 나만의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꽤나 어렵다. 무리 지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는 듯 비슷해 보이는데 나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한 듯 외롭게 남겨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는 나에게 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취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나의 취향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박자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가 말하듯 박자는 메타포일 뿐이고 나만의 박자에 따라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혼밥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인용씨는 어느 식당을 가던지 메트로놈을 켜고 그 음식을 먹는 박자에 얽매어 식사를 한다. 인용씨가 혼자 밥을 먹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박자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인용씨는 실기시험을 보는 날 자신만의 박자 찾기를 실패한다. 인용씨는 혼자 식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일까?

인용씨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곱씹는 동안, 학원에서 몇 마디 말을 나눠보았던 친구가 나타난다. 친구는 재등록을 했다. 인용씨는 자신과 같이 떨어졌다고 지레짐작을 한다. 하지만 친구는 실기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재등록을 했다. 막상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그 감정, 이 세상에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동질감이 혼밥 학원의 높은 재등록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닐까?

마지막 장면에 4명의 배우가 나와 각자의 1인용 식탁을 즐긴다. 직접 고기를 구우며 먹는다. 4명은 각각 친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혼자만의 식사를 즐긴다.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 또한 혼자만의 식사를 오롯이 즐기며 먹는다. 다양한 1인용 식탁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1인용 식탁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움직임 노트

권영호

움직임감독

혼자 먹는 식사는 복싱이다

작가는 혼자 먹는 식사가 타인의 시선에
대항해 싸우는 한판의 복싱 경기라고 말한다.
〈1인용 식탁〉에서 복싱 동작은 중요한 움직임
키워드다. 인용은 두 발을 앞뒤로 적당히
벌리고 가드를 올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항해
한판 경기를 벌일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하체의
단단함, 두 팔의 견고함 등 복싱선수가 마땅히
갖춰야 할 체력과 기본기를 인용은 갖추지
못했다. 상관없다. 인용을 통해 우리가
보여 주고 싶은 것은 완성된 복싱의 기술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와
투지, 이를 통해 인용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비단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시의
전략은 아닐 것이다. 인용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고 그곳으로 한 발짝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련된 몸이 아니라
서투른 몸짓이다. 서투르지만 의지에 불타는
몸과 눈빛. 거기서 발하는 의지의 에너지다.
〈1인용 식탁〉의 연습 과정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동작보다 에너지”였다.

공간과 움직임

움직임 디자인은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배우의 신체가 공간의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가 표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1인용 식탁〉의 무대는 극장 공간의
중앙에 불쑥 위로 올라와 있다. 지면에서
위로 솟아오른 사각형 무대는 계단으로
지면과 연결돼 있고 객석과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연결되어 있다. 사각의 링을
담은 이 무대 위에 우리는 사무실 공간을
올려놓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면 건물을
빠져 나와 삼삼오오 식당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올려놓는다. 김치찌개집, 횡집,
쌀국수집, 삼겹살집 등 각양각색의 식당들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인용이 마주한 식탁도
올려놓아 본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배우의 신체로 표현된다. 신체 배치를 통해
각지고 정렬된 사무실을, 자유로운 곡선을
통해 골목길을, 마주본 형태를 통해 식당을
표현한다. 인용이 마주한 밥상이나 훈련
장면 등에서 날렵한 V자 대형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대형을 그려 본다. 그 외에도
계단 공간과 객석과 밀접한 사이 공간까지도
무대 공간으로 흡수하려 노력했다. 모든
공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를
발견하고 배우의 신체와 함께 재탄생되는
일이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소품사용의 절제

〈1인용 식탁〉에선 소도구를 최소화한다.
그럼으로써 우린 배우의 신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이 연극을 연극으로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연극에선 밥을 먹는 행위를 하기 위해
진짜 밥상이 차려질 필요가 없다. 밥상을
생략하고 밥 먹는 행위를 하는 배우의
신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밥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밥 먹는 행위 속에 내재된
인물의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구와 먹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먹는가, 무슨 목적으로 먹는가 하는
등의 문제는 밥상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린
인용이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릴 때에
필수적인 소품인 철봉을 생략한 이유도
철봉 제작비용의 문제이거나 무대전환의
번거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장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인용의
신체 속에 담긴 정서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인용 식탁〉의 움직임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신체 에너지와
언어의 일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연극에서 움직임은 언어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출의 의도를
파악하고 배우의 연기를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때론 대화와 논의에서보다 관찰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연습실에서
배우들로부터 나온다.



음악 노트

윤지예

음악감독

<1인용 식탁>의 대본을 처음 읽어 보고 나서, 음악적 용어들이 극의 전반에 나타나 있고 극을 이끌어 가는 주요한 요소로 사용된 것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난다. 쌀국수는 3/4박자에 맞추어 먹고 한정식은 6/8박자, 스테이크는 2/4박자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듯이 또는 식사를 지휘하듯이 먹었다. 박자를 살려 주면서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고민했다.

<1인용 식탁>의 음악적 구상의 큰 틀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타악기의 사용: 박자를 위트 있게 살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곡은 극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음악이다. 어떠한 공간, 사무실일 수도 있고 복잡한, 무언가 생활을 해 나가는 형태의 장면이다. 생활 소음을 녹음해 악기처럼 사용하며 다양한 타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했다. 피아노로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으나 최소한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타악기와 같이 리듬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했다.

오프닝뿐 아니라 전반적인 곡들에 다양한 나라의 여러 타악기를 썼다. 박자형이 정박으로 메트로놈(음악의 템포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기계)에 의해 제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음향적으로 재미를 주고자 흥미로운 소리를 가진 타악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메트로놈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이용: 극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트로놈의 음향을 음악적으로 사용, 발전시켜 보자.

다섯 번째 곡인 한정식 음악은 6/8박자를 기반으로 만든 곡이다. 대본에 박자를 맞추어 반찬과 밥 그리고 국을 먹는 순서가 제시되는데 매우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 메트로놈이 먼저 박자를 잡아주고 점점 음악적으로 발전한다. 여섯 번째 곡은 회식 때 쌀국수를 먹는 장면으로 3/4박자에 맞추어 먹는다. 먹는 것을 형상화한 움직임과 템포가 잘 맞도록 음악을 만들었다. 열 번째 곡에서도 메트로놈 음향이 곡의 시작을 알리고 음악과 섞이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된다.

셋째, 중간중간 등장하는 강렬한 캐릭터들을 살릴 수 있는 개성 있는 음악을 삽입하여 지루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자.

여기에 해당하는 곡은 두 번째 곡인 전단지가 흩뿌려질 때 쓰이는 음악, 네 번째 곡인 횃집에서 여자가 등장할 때 쓰이는 음악, 여덟 번째 곡인 선배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다. 색채가 강한 캐릭터를 음악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받쳐줄 수 있는 음악으로 장면의 재미를 더하면서도 템포감을 잃지 않도록 고심하여 선곡했다.

넷째, 극적으로 연관된 배경음악들끼리 내적 요소들을 변형, 결합하여 음악적으로도 연계성을 갖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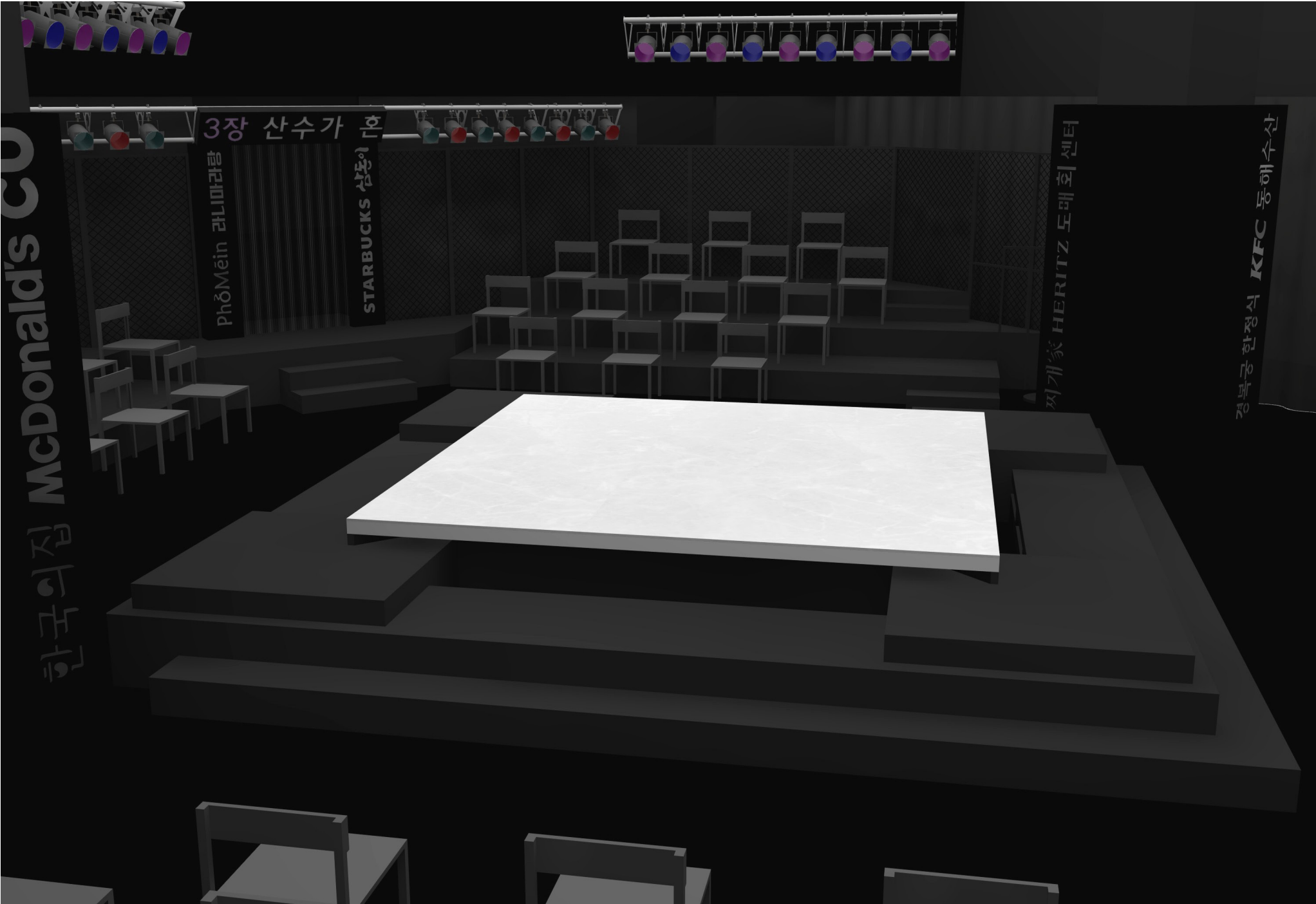
여기에 해당하는 곡으로 우선, 열두 번째 곡인 시험 장면의 음악이 있다. 처음에는 독자적인 음악적 동기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인용이 흐트러지면서 음악도 함께 혼란스러워진다. 앞서 배웠던 박자들이 마구 섞이는 모양새다. 앞에서 이미 등장했던 2/4박자의 스테이크 음악, 6/8박자의 한정식 음악의 일부분들이 재등장한다. 그리고 열세 번째 음악인 마지막 장으로 가는 전환 음악이다. 혼자 먹는 식사에 대한 인물들의 대사와 맞물리며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간다. 다섯 번째 곡인 한정식 음악과 열두 번째 곡인 시험 장면의 음악적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구성했다. 좀더 힘이 있는 느낌으로 편곡을 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식사답다’고 느꼈던 것이 한정식이었고, 혼자 먹는 식사와 삶에 대한 생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계속 시험과 같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두 곡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발전, 확장시켰다.

위와 같은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개의 음악을 만들었다. 매우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즐거웠다. 즐거운 공연이 되길 바란다.

무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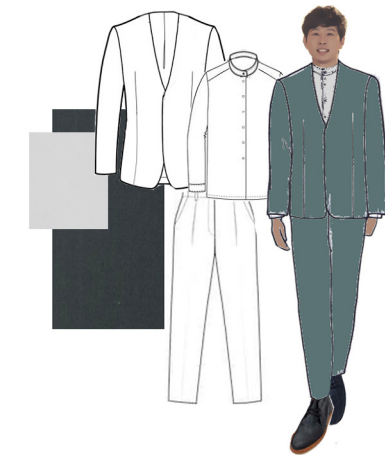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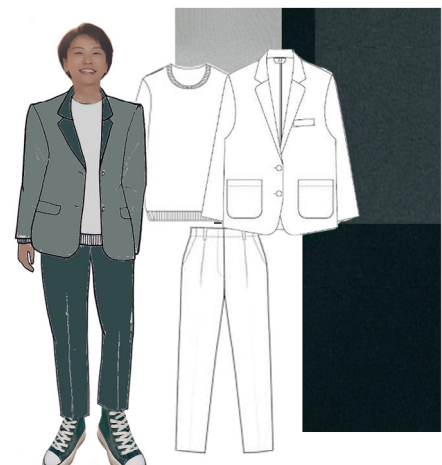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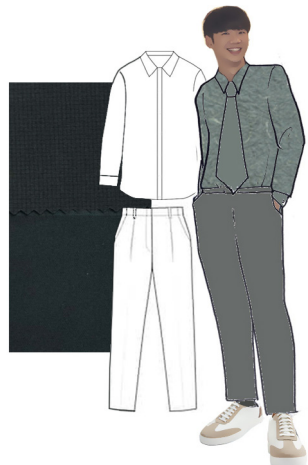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사각의 링 위에 홀로 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링 위에 고립된 나와 그 주위를 둘러싼 우리들의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

서지영 무대디자이너



의상 스케치

오현희 의상디자이너



색감이 뚜렷한 일상적인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한 주인공.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주인공의 의상과는 대비되는 의상을 착용한 인물들이 무대 위에 공존한다.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무리에 끼지 못하고 곁돌던 오인용이 오히려 타인보다 주체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극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자기의 색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그에 비해 유일무이해서 역할의 의상은 회사원을 모티브로 각각 배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구성하되 의상을 같은 톤의 컬러로 통일해 개개인의 개성을 최소화 했다. 다소 이분법적인 디자인이지만 단순하게 표현하고 인물 전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오인용의 감정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대사에 집중하며 이 작품의 주제를 좀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크레딧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1인용 식탁
2020.5.6 - 5.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출연
김시영 윤성원 이새롬 류혜린 이화정 허영손 김연우

원작
윤고는 「1인용 식탁」, 『1인용 식탁』
(문학과지성사, 2010)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조연출
이다빈

무대·소품디자인
서지영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남기현

조명디자인
정유석

조명디자인 어시스턴트
곽태준

조명오퍼레이터
정하영

조명크루
유보민 정우원 김소현 정주연 홍유진 홍주희

작곡·음악감독
윤지예

음향디자인
박재식

음향디자인 어시스턴트
김진선

음향오퍼레이터
박재식

의상디자인
오현희

분장디자인
장경숙

분장진행
남혜연 박진경

움직임지도
권영호

무대감독
김민국

무대조감독
문은미

무대제작
에스테이지 (s_TAGe)

무대크루
이윤중 조환준 정우근 차승호 정재현 김세진

그래픽디자인
일상의실천

사진기록
프로필·공연 서울사진관
연습 김용민

영상기록
헤즈 스튜디오

인쇄
퍼스트경일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중 정다운 이예나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최혜원 이규원 박수진

티켓매니저
이희정 김지수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심진경 방효주

회계
정다미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정진우 김성수 이지나 장유진



두산아트센터 공모 안내 2020-2021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을 지원합니다.
공동기획 작품은 Space111 무료 대관 및 소정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 5월 11일 - 6월 10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 (작품당 1천만원) ·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하우스 운영 인력 * 선정단체 부담: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운영
공연기간	2021년 12월
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자격/장르 제한 없음 * 재공연 작품 가능

두산아트랩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 6월 15일 -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 (팀당 7백만원) · 발표 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 (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발표기간	2021년 1-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장르 제한 없음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인원	9팀 * 개인 혹은 단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두산아트센터 apply@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2020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팬데터 뮤지컬 19.11.7~2.2

작 한재은 연출 김태형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5.29~8.23

연출/안무 정도영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9.19~11.8

원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뮤지컬 11.19~21.2.7

극본 강남 연출 오루피나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1.15~2.15

최윤 개인전 5.6~5.30

박경률 개인전 6.10~7.11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8.19

김주원 개인전 9.9~10.21

우정수 개인전 11.11~12.16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1.16~2.15

우정수 개인전 3.5~4.11

이윤이 개인전 6.25~8.15

박경률 개인전 9.10~10.17

최윤 개인전 11.5~12.17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6.1~7.20

두산아트스쿨 : 미술 6.12~7.10, 10.8~11.5

두산아트스쿨 : 공연 7.24~8.14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숍 7.4~11.30

두산아트센터 투어 분기별 1회 예정



Doosan Art LAB

앵커 연극 1.30~2.1

작/연출 서정환

양질의 단백질 연극 2.6~2.8

작/연출 김연주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연극 2.13~2.15

작 글과무대(황정은 진주 최보영)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연극 2.20~2.22

작 추태영 백지영 연출 추태영

두산인문극장 2020 : 푸드 FOOD

1인용 식탁 연극 5.6~5.23

원작 윤고은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궁극의 맛 연극 6.2~6.20

원작 초치야마 시게루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식사(食事) 연극 6.30~7.18

작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연출 윤한솔

DAC Artist

이승희 신작 판소리 9.15~9.26

윤성호 신작 연극 10.13~10.3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구자혜 신작 연극 11.10~11.28

공동기획

문 밖에서 연극 7.25~8.1

작/연출 이양구

마른 대지 연극 8.8~8.23

작 루비 래 슈피겔 연출 윤혜숙

크리스천스 연극 12.5~12.26

작 루카스 네이스 연출 민세롬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서울 02.708.5050 doosangallery.com
 두산갤러리 뉴욕 +1.212.242.6343/6484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